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영어상용화 방안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교수 김 원 보

1. 들어가며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고품질 저비용으로 다양한 계층에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영어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국제경쟁력을 잃은 영어공교육은 학생들의 해외유학·어학연수 수요를 조장한다는 비난까지 받아왔다. 또한 공교육의 문제와 함께 영어사교육 시장도 갈수록 그 덩치를 키우고 있는 데 반해 영어공교육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영어마을도 그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급진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제주영어교육도시이다.

2008년 초·중·고 유학연수생은 4만 3000명으로 지난 2006년의 약 4만 5000명에 비해서는 약간 감소했지만 2001년의 2만 6000여명에 비하면 약 1.6배 증가했다. 유학 및 어학연수 수치적자도 2008년 45억 달러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영어사교육비 시장규모를 생각하면 영어공교육의 부실로 인한 국민부담은 엄청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과 생활을 모두 영어로 할 수 있는 정주형 영어 전용 타운인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해 영어사교육 시장 규모 축소는 물론 및 초중고생의 해외 유학생을

국내로 돌려 연간 3억2400만~5억4000만 달러에 이르는 국부유출을 막아보겠다는 계산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12개의 학교가 설립돼 총 9000명의 학생을 수용하며 기숙사와 영어교육센터, 주거·상업·문화시설 등 정주형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제주영어 교육도시내의 초·중·고등학교는 국어와 국사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몰입교육이 실시되며 정규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되고 국제학교의 경우는 학력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된다.

이렇게 추진된 영어교육도시가 원래 추진일정보다 1-2년 늦어지고 약간의 우연곡절이 있기는 했어도 성공 가능성이 밝아 보인다. 공립인 한국 국제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와 영국 명문사학인 North London College School이 학교신축 공사를 이미 시작했고, 2011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입학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꼭 들어찬 입학 설명회장마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성공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사실 유명 국제학교 유치 및 많은 학부모의 관심 등으로 외견상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또 다른 장애물이 내부적으로 버티고 서있다. 바로 영어교육도시 내 영어상용화 환경조성이다. 영어

교육도시의 영어상용화 환경 조성은 학생의 영어능력 극대화 및 외국인 교사를 비롯한 거주 외국의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실현해야하는 것으로, 영어교육도시가 안고 있는 또 다른 과제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고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어떻게 영어상용화를 점차적으로 실현할 것인지에 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추진현황과 현재 입장에서 영어교육도시의 미래 전망을 간단히 진단해 본 후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의 영어상용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2.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추진 현황과 전망

1) 추진현황

제주영어교육도시는 2006년 10월 재정경제부에 의해 조성계획이 발표되어 2007년 9월에 확정되었다. 사업부지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약 380만m²로, 여기에 들어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12개 초중등 교육기관을 비롯하여 주거 및 상업시설이 들어설 교육시설 단지, 교육관광 예술 분야의 세계 유명 대학 10개 정도의 캠퍼스가 들어설 대학시설 단지와 교육문화 예술 스포츠 시설이 들어설 교육문화예술 단지의 3개의 단지로 구분되어 조성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8월 개발 구역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2009년 1월에 실시 계획이 인가된 직후에 2009년 4월에 영국 North London College School(이후 NLCS)과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어 잇달아 같은해 10월에는 캐나다 Branksome Hall(이후 BH)과 12월에는 미국 ST. Albans School(이후 SAS)과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0년 3월에

는 NLCS와 학교설립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제학교설립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으며, 4월에는 1단계 사립학교 신축을 위한 건축공사가 착공되었다. 캐나다 BH와는 2010년 7월에 학교설립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으며, 미국의 SAS와는 본 계약을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11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영국 NLCS는 올 8월에, 한국국제학교(이후 KIS)는 올 10월 학교신축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KIS는 2010년 10월 중순경 입학설명회를 시작한 이후 전국에 걸쳐서 관심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입학설명회를 진행한 후 12월 중순 현재 모집정원 504명 중 첫 개교년도에 모집하지 않는 9학년 정원 72명을 제외한 신입생을 뽑기 위한 서류와 필기시험을 마친 후 최종합격자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다. NLCS 역시 2010년 10월에 입학설명회를 시작했으며, 영국의 유명 사립학교라는 국제적인 인지도를 내세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입학설명회도 진행하고 있다.

2) 전망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정책입안 과정에서 수요예측과 유인효과 측면에서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되었다. 교내외의 영어상용화 환경을 갖춘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충분하다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에는 초중고 해외 유학생이 2만7000명으로, 여기에 어학연수생까지 합치면 대략 4만 300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유학 및 어학연수목적으로 해외로 나갔으며, 또한 한국 내에서 영어가 누리는 외국어로서의 인기 등으로 인한 영어 사교육 시장의 규모를 고려하면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실패할 수 없는 사업으로 인식된 것이 사실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수요목표치는 2005년 기준 유학 및 어학연수생, 외국어고·

국제고 지원자 9만 명의 10%인 9000명으로 설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 영어에 대한 폭발적 잠재수요를 생각하면 오히려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입학하기 위해 학생선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낙관적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사실 사업추진 초기에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처음에는 과연 외국의 유명 국제학교가 제주에 오려고 할 것인가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어떻게 동양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조그만 섬 제주에 그런 학교들을 유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자격지심에 이르기까지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이런 불안감은 권정이 바뀌고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운영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확산되어 나갔다. 우여곡절 끝에 교육도시 내 기반공사를 시작하면서 영국의 NLCS, 캐나다의 BH를 유치하기로 계약을 맺고, 또 미국의 유명 사립학교인 St. Albans school와도 계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함에 따라 교육도시의 성공적 건설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도시의 성공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했다. 회의적 생각의 중심에는 과연 공립학교인 KIS와 유명 사립학교들일지라도 비싼 수업료로 인해서 모집정원을 채울 수 있을까하는 것이었다. 공립학교의 학비가 1,700-1,800만 원정도로 기숙사비까지 합치면 3,000만 원에 이르며, 사립학교도 기숙사비용을 합치면 거의 40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런 염려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막상 학생을 모집하기 위한 입학설명회가 시작되자 이런 염려는 기우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2010년10월 중순부터 KIS와 NLCS가 학생모집을 위한 입학설명회를 전국적으로 시작하자 설명회장은 관심있는 학부모들로 들어찼으며 입학생모집을 시작한 KIS는 입학정원보다 많은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NLCS는 영국의 유명사립학교라는 국

제적 지명도를 앞세워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 학생모집을 위한 설명회도 진행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진척상황을 면밀히 고려하면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 가능성과 전망은 매우 밝다. 모든 염려와 회의적 시각을 뒤로 한 채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외국 유명사립학교 설립, 입시설명회, 국내학생 유치 측면에서 순항하고 있다. 물론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난제는 아직도 많다. 학교 유치목표가 12개교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외국 학교를 유치해야 함은 물론 외국대학 캐퍼스도 유치해야 한다. 더군다나 학교유치나 기반시설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만으로는 교육경쟁력이 확보되지 않는다.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교육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수업의 질, 우수교사 확보, 외국인 정주인구확보, 교내외 영어상용화 실현 및 정부의 안정적 지원 등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이런 몇 가지 사실이 충족되면 제주영어교육도시 는 실패할 수 없는 사업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한국영어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함은 물론 조기유학의 대안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그 파급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기대되며, 제주도에 있어서는 제주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 분명하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이런 낙관론은 제주교육도시를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주도민과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기관의 흔들림 없는 지원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3. 영어상용화 방안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중 하나가 교내외 영어상용화 환경조성이

다. 교육도시 내 학교 교실에서의 교수언어가 영어라는 사실을 제외하면 교실 밖과 학교 밖에서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영어상용화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은 물론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해주어야한다. 여기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존재이유인 학생들의 입장,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학교를 이끌어갈 외국 선생님과 그 가족을 비롯한 정주외국인의 입장, 그리고 학생과 정주외국인의 생활편의를 지원해야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어떤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영어상용화 해주는 것이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정착에 도움이 되는지를 염두에 두고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영어상용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학생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영어로 가르치고 수업을 받는 혁신적 영어교수법을 통하여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떤 시설의 영어상용화가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어떻게 영어상용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보겠다. 우선 학교내 영어상용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물론 학교 내의 영어상용화 문제는 전적으로 학교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외부에서 언급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잘못하면 학교운영에 간섭한다는 인상을 줘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학생들의 영어능력 및 한국에서의 영어교육 상황을 고려하면 관심과 연구대상으로 써 다룰 필요가 있어 언급해보고자 한다.

우선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설립목적은 저비용 고품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초중고생의 해외대학 수요를 국내로 돌려 외화를 절감하는 것이다. 즉 제주영어교육도시의 1차적인 목표는 한국학생의 영어교육이므로 대부분의 학생은 한국학생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학교들의 학생들 대

부분은 한국학생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실언어가 영어라고 할지라도 수업시간 외에는 학생들은 영어가 아닌 한국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 더군다나 수업에서 영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영어수업에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혹은 수업내용 자체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설립취지를 상기해 보면 학교에서의 영어상용화를 포기할 수도 없다. 대부분의 학생이 한국학생이고 영어수업에 대한 준비가 덜 된 학생들이 있다고 해도 학교에서의 영어상용화는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다. 여기서 국내 학교에서의 영어상용화의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어떻게 영어상용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략 450여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민족사관고등학교는 국어나 국사과목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학교내 언제 어디서나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수업시간은 물론 기숙사나 식당 등 학생들은 동료학생들과의 사적인 대화에서도 영어를 사용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영어를 사용해야하는 상황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면 일정한 벌칙을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학교 측은 교내영어상용화를 강제로 시행하면서 위반하는 학생에게는 벌칙을 가하는 방식으로 영어상용화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영어상용화는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왜냐하면 영어상용화 정책이 졸업생들의 해외대학 입학 시 영어수업에 무리없이 따라가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의 영어상용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는 학교가 선택한 단계적 영어상용화 정책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다음의 표가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선택한 단계적 영어상용화 정책을 보여준다.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학술영어 학습 ■ 우리말을 주로 사용하면서 영어를 보조어로 사용하는 수업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를 주로 사용하면서 우리말을 보조어로 사용하는 수업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만으로 진행되는 수업

〈그림 1〉 단계적 영어상용화 정책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영어상용화 정책의 핵심은 영어수업에 대비가 덜된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시간의 영어사용빈도를 점차적으로 늘려 영어만 사용하는 단계로 발전해 나감으로써 학생들의 적응을 도와주는 물론 처음부터 영어로만 수업하므로써 일어날 수 있는 수업의 질적 훼손까지도 막아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 중학교에서 대부분의 교실영어가 한국어여서 영어수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더군다나 민족사관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입학당시 영어실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이런 단계적 영어상용화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학교들이 수업의 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영어수업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수업시간 이외에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영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해야만 한다. 수업을 영어로 진행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초중고 수업의 성격상 영어를 이용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수업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교실 밖 학생들끼리의 대화라든가 기숙사에서의 생활언어를 영어로 정해서 부족한 영어 활용 기회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

문제는 교실 밖에서의 영어사용을 어떻게 장려해 나갈 것이냐 하는 점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 스스로 영어상용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를 테면 학생대표들로 이루어진 영어상용화 정착을 위한 학생조직을 만들어 그 학생조직으로 하여금 학생들의 영어사용을 자율적으로 권장해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한다. 옐로우 카드제를 도입하여 그 학생조직이 영어사용을 위반한 학생들에게는 처음에는 경고성 옐로우 카드를 발급하고 그 발급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벌칙의 강도를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영어상용화를 위한 강제적 조치가 학생회 중심으로 시행되어야만 한다. 물론 영어상용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은 물론 자율성을 존중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영어상용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방식으로 영어상용화가 추진되어야한다.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도 영어상용화 정책을 위반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회 자체에서 벌칙을 정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영어상용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장려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학교밖 영어상용화이다. 학생 입장에서 영어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할 시설이 도서관일 것이다. 따라서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설 도서관은 영어상용시설이 되어야만 하며 더 나아가 도서관자체가 영어전용도서관이면 더 바랄 나위가 없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도서관 한 층을 영어전용도서관으로 만들어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시설이 되어야 한다. 영어교육을 위한 영어전용도서관의 유용성은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서 누차 지적되어온 것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필요한 시설이며, 그런 시설을 영어만 통용되는 시설로 만들면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은 물론 학교생활의 적응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금까지 학생의 입장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어떤 시설들이 영어상용화가 되어야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우선 교실 내에서는 물론 교실 밖 기숙사 식당 등에서도 강제적으로 영어를 쓰도록 하는 영어상용화 정책이 학교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교실 밖 영어상용화는 학생 주관의 자율적 영어상용화 정책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 밖에서 영어 상용화가 가장 시급한 시설은 도서관이며, 그 도서관의 한 층 정도는 영어전용도서관으로 하고 영어전용도서관은 영어만 통용되는 시설로 만들 필요가 있다.

2) 정주외국인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외국인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전제조건은 교육도시 내 언제 어디서든 영어가 통용되고 설사 한글을 읽고 이해할 줄 모른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환경 조성이다. 즉 외국인들의 직장 과 집이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영어상용화 지역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말과 문화가 다른 이국땅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고, 마치 고국의 타향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언어적 문화적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주어야 한다. 이처럼 외국인의 입장에서 영어상용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는 영어 교육도시 내 공공기관의 영어 친화적 환경조성일 것이다. 이를 테면 동사무소, 소방서, 파출소, 병의원, 약국 등을 영어 친화적 환경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언어적 장벽 때문에 오는 생활의 불편함을 줄여주어야만 한다. 특히 공공기관과 병의원 및 약국의 영어상용화는 언어적으로 영어가 통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문서 및 처방전과 복약지시서가지도 영문화하는 것으로 행정서비스의 영문화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영어상용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레스토랑 및 쇼핑시설 등 상업시설에서 영어가 통용되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특히 커피숍, 레스토랑 분식집 등의 외부간판을 알기 쉬운 영어로 표기하여 간판만 보고도 그 시설이 무슨 종류의 음식을 파는 지 한눈에 알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가게 안의 메뉴판에도 이해하기 쉬운 영어를 써서 설명해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호주의 한인식당에서 주로 이용되는 메뉴판과 메뉴북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고 싶다. 즉 메뉴판의 음식에 번호를 매기고 우리말과 영어를 병기한다. 여기에 더해서 메뉴북도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메뉴북은 책 형태로 된 것으로 각각의 페이지마다 실물 크기의 음식 사진을 넣고 메뉴판의 음식에 매긴 것과 동일한 번호를 넣고 음식명을 한글과 영어로 병기하고 음식의 재료와 맛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 다음 매운 정도를 표시해주어 재료와 맛 그리고 매운 정도를 고려하여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외국인이 식당안으로 들어오면 일차적으로 메뉴판의 음식명을 보고 음식을 일차적으로 선택한 다음, 번호순으로 된 메뉴북에서 그 음식에 대한 설명을 보고 쉽고 정확하게 먹을 음식을 주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글 발음이 쉽지 않은 외국인은 메뉴판의 번호를 이용해서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식당이용의 불편함을 때번 지적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식당의 외부간판의 영문표기문제 및 영문 메뉴판과 메뉴북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식당이 민간 상업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문표기문제와 영문 메뉴판 및 메뉴북 작성에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지원과 적극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민간시설이라는 이유로 뒤로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조기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쇼핑시설에 대한 영어친화적 환경조성이 다. 외국에서도 사실 대형 쇼핑시설의 경우 눈으로 물건을 직접 보고 살 수 있어서 외국인들도 쇼핑시설 내에서 영어를 그렇게 자주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 말을 해야 하는 경우는 물건을 잘 못찾아서 종업원에게 물어보는 경우 및 계산상의 오류나 물건교환등과 같은 경우 등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한해서 쇼핑시설 내에서 종업원과 대화한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쇼핑시설 내에 영어 통역요원을 배치하면 될 것이다. 아마도 쇼핑시설 내에서 영어가 가장 필요한 경우는 영수증의 구매한 상품내역의 영어표기이다. 상품 구매자는 구매한 상품내역과 지불한 돈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에 상품구매내역을 영어로 표기하여 외국인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쇼핑시설의 영어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

세 번째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들어설 문화 및 스포츠시설에서의 영어상용화가 필요하다. 생활하는데 쌓인 피로를 풀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화 및 스포츠 시설에 대한 정주외국인의 접근성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그런 시설 이용을 가로막는 언어 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그런 시설들에 대한 영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들이 부담없이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에 대한 안내정보를 영어로 제공함은 물론 그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는 직원들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네 번째로 정주외국인들은 한국생활에 나름대로 정착하기 위해 한국과 제주의 전통 및 문화를 알고자 알 것이며, 그런 외국인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영어교육센터에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로 진행되는 한국과 제주의 전통 및 문화프로그램을 개

설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한국 및 제주의 문화에 낯선 외국인이 제주에 무리없이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외국인에게 알려줌으로써 정주외국인이 우리의 문화와 삶을 이해하고 그런 이해를 통해서 정주외국인과 한국인사이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정주외국인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센터가 영어교육도시 내에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 상주하는 통번역사는 정주외국인을 위해 한글로 된 각종 공과금 처리, 집으로 배달되는 한글로 된 우편물의 번역 및 응급시 필요한 통역서비스 등 정주외국인이 생활하는 도중 예기치 못하게 닥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정주외국인의 입장에서 어떤 시설들이 영어상용화가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봤다. 공공기관의 영어상용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더 나아가 식당 및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 문화스포츠 시설의 영어상용화가 외국인들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하다. 이외에도 정주외국인을 위한 제주와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알려주기 위한 영어로 진행되는 문화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우리의 것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해주어야 한다.

3) 운영기관

마지막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운영기관은 어떻게 함으로써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영어상용화에 기여하여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은 물론, 외국인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운영기관의 입장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영어상용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주외국인 수를 늘려 자

연스럽게 영어가 통용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주외국인 수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서도 어려운 방법으로는 제주에 유치 예정인 초중등 교육기관 및 외국 유명대학의 유치를 조기에 마무리 지어 많은 수의 외국 유학생과 교수진 및 가족이 제주 영어교육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유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시설들로, 서둘러 외국의 초중고 및 대학 캠퍼스를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끌어들이 모든 교육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탑 교육체제를 갖추으로써 영어상용화 환경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외국유학생 유치에도 탄력을 줄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제주시내나 서귀포 시내에 대한 버스를 이용한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여 외국인의 삶에 있어서 제주의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경쟁력을 갖추으로써 영어교육도시를 외국인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정주 외국인 수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운영기관의 영어상용화 정책을 수용하여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민간 상업시설에 대해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때는 세제 및 재정적 측면에서 일정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 고용 시 영어교육도시 내 거주 외국인 가족의 우선 고용을 적극 권장하고, 1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외국인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행정지도를 수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영어사용이 가능한 외국인 고용 확대를 통해 민간 상업시설을 영어 친화적 환경으로 변모시켜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설 12개 초중고등학교가 들어설 교육시설 존과 평생교육시설이 들어설 교육문화시설 존에 있는 몇 몇 개의 핵심 시설들은 영어상용공간이 아니라 영어만 통용되는 영어전용 공간으로 만들어 교육도시 거주 한국인의 영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은 물론 교육도시 내에

서 영어상용화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각각의 존의 핵심적 자리에 위치한 이런 시설들을 중심으로 영어상용화 환경이 인근 시설로 파동치듯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운영기관의 입장에서 학생과 외국인이 살기에 불편함이 없이 없도록 하기 위해 어떤 시설을 영어상용화 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다. 정주외국인 수를 늘리고, 영어사용이 가능한 외국인 직원채용을 권장함은 물론, 핵심시설의 영어전용화를 통해 영어상용화가 인근시설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영어상용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각종 정부지원을 확보함은 물론 행정적 제도적 법개정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나오며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진척상황을 고려하면 영어상용화 등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제주영어교육도시 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는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이끌어 나갈 신성장 동력 산업이다. 따라서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 사고와 발전적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물론 제주영어교육 도시 추진과정 곳곳에 여러 변수도 있을 수 있고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문제점들로는 첫 번째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지원과 관심에 비해 제주방언 및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다. 제주의 문화와 전통 및 언어가 존재하고 난 후에 외국어나 외국문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문제점 제거를 겸허히 수용하여 우리 것에 대해 도민들이 관심

을 가지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영어 사교육을 조장하고, 오히려 영어사교육시장을 키우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점은 여러 언론매체에서 여러 번 지적된 사실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설립취지와는 정 반대로 가는 것으로 이런 문제점 제기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비싼 학비로 계층간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론 공립학교인 한국국제학교인 경우 학비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으나 그 비율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공립학교인 경우에는 공부만 잘하면 앞으로는 돈이 없어도 입학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고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조화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본궤도에 올라오기 시작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중단을 요구하거나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을 위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제주도와 도민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나 단점이 발견되면 지혜를 모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하며, 필요하다면 정부에 행·재정적 지원을 한목소리로 요청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요청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익. 2000,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영어교육 환경 개선 방안,” 「영어교육연구」 12권 1호.
- 김원보·이용민. 2007, “필리핀의 사례검토를 통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운영방안”, 「제주영어영문학」, 12권 2호.
- 김종훈. 2002, “제주국제자유도시와 바람직한 영어정책의 방향”, 「언어학 연구」 7권 1호.
- 박경자의 외 3인. 1998, 「영어교육입문」, 박영사: 서울.
- 박영준 외 4인. 2004, 「영어공용화 국가의 말과 삶」, 한국문화사: 서울
- 일간 및 대학신문. 2007, 제주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제대신문 등.
- 조영욱. 2003, “한국과 필리핀의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 비교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주언어학회. 2002,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언어정책」.
- 제주언어학회. 2003, 「제주도민 외국어 능력 향상 방안 세미나」.
- 김원보. 2007,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과 향후 전망”, 제주발전연구 제11호.
- 김원보·변길자. 2008,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제주의 영어경쟁력 강화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도 인력개발원. 2010, 「2010 장기외국어 연수과정 해외연수보고서」.
- Dubin, F and E. Olshtain. 1986, Course Design: Developing Programs and Materials for Language Lear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ley, B. and P. Allen, J. Cummins, and M. Swain. 1990, The Development of Second Language Proficien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im Won-bo. 2002, "School English Education in Free International Jeju City", 『언어연구』 18-2: 43-58.

Kim Won-bo. 2003, "Strategies for Activating School English Education i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Manuscript.

Kim Won-bo, 2010, "Strategie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jeju Global Education City", Journal of the Korean English Education Society, Vol. 9, No.3 Winter 2010 (to be published).

Nunan, D. 1995, "What is learning-centered communication?" English Teaching 50: 3-16.

<http://www.jdcenter.com/kr/>

<http://jeju.educity.or.kr/>

<http://www.qataracademy.edu.qa/>

<http://www.minjok.hs.kr/>